



Portfolio



부드러운 리더십 얼랑시스템(주) 박원구 대표

얼랑시스템(대표 박원구, www.erlang.co.kr)은 초고속 통신용 비메모리 반도체칩 (ASIC) 설계업체로서 교환기,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핵심 칩과 보드를 설계·제조한다. 여기서 개발한 교환기용 칩과 보드는 LG전자에 납품되어 최종 교환기로 완성된 후 KT, 데이콤, SK텔레콤, KTF 등에 판매된다. 모범적인 상생경영을 통해 LG전자에 장영실상을 안겨준 장비인 MSR40의 핵심 비메모리칩을 개발한 얼랑시스템. 수요자 맞춤 설계로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세계 1위를 향해 발전하는 얼랑시스템의 박원구 대표를 만나본다.

3G W-CDMA 이동전화용 핵심칩 개발한 '얼랑시스템'



“3세대(3G) W-CDMA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W-CDMA 교환기용으로 공급해 온 칩세트의 재고가 완전히 소진됐다”며 반색하는 박원구 대표. 그가 이끄는 얼랑시스템은 지난 2002년부터 미국 얼랑테크(대표 민승규)와 LG전자가 만드는 다양한 교환기의 핵심 칩세트(switch fabric chipset)와 보드를 공급해 왔다. 기술제휴선인 얼랑테크는 미국 워싱턴대 전자공학과 교수인 민승규(미국명 Paul S. Min) 박사가 1999년 설립하였으며 초고속통신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외국산 교환기의 시장잠식 방지

박원구 대표가 회사를 설립한 것은 2000년 3월. 대기업에 근무했던 그가 40대 중반의 시기에 창업에 도전한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는 포스코가 경영다각화에 열중하던 시절에 신사업개발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포스코가 제2이동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기통신을 설립하자 창립 멤버로 옮겨와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업한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반대할까봐 아내의 물론 아이들에게 말도 못 꺼냈어요(웃음).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이 창업의 길로 들어선 당시를 떠올리며 박 대표는 말한다.

1999년부터 불기 시작한 벤처열풍은 200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기술 분야와 연구 개발직에 종사했던 이공계 출신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뜨거웠다. 박 대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차 창업에 도전하려는 꿈을 키워갔다. 그러다, 업무상 알게 된 재미교포 민승규 박사와 의기투합하여 ‘얼랑시스템’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고. 박 대표는 “이렇게 시작된 사업은 연구개발, 영업, 신사업개발,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창업 후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박 대표는 사업을 해오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자금력이 든든하며 공룡 조직인 거대외국 회사의 장비에 맞서, 얼랑이 개발한 실용

적이며 우수한 칩을 국내 시스템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산장비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을 꼽았다. 얼랑시스템이 설립되기 전까지 교환용 칩 세트는 전량 외산에 의존했다. 그 만큼 교환기용 칩 시장은 핵심기술이 중요한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었다.

“몇 년 전에는 교환기용 칩을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이 다수 있었지만, 현재 극소수 회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회사마저 교환기나 3G용 칩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했다면 시스코, 줌피 등의 외산 장비가 국내시장을 더욱 잠식했을 것입니다. 통신서비스업체는 더 높은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비 유지보수비도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LG전자’라는 시스템업체와 ‘얼랑(Erlang)’이란 설계(fabless design)업체가 협력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내 핵심기술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 대표. 그 연장선에서 기술개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의견도 내놓는다. “기술 및 제품의 표준은 빨리 결정하고, 한 번 결정된 표준은 가급적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IT분야는 기술혁신이 빠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상용화에 성공한 신제품을 개발했다 해도 투자비 회수에 충분한 판매를 하기 전에 새로운 첨단제품이 출현, 팔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용 칩 출시 임박

현재 분당의 연구소 이외에도 미국에 박사급

연구진을 파견,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얼랑시스템의 박 대표는 이처럼 R&D를 중시하며 회사운영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선호한다. 강력한 리더십 보다 직원들을 믿고 챙겨주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채우려는 노력”이라며 “사업하면서 어려움 점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멘토를 각 분야에 만드는 것이 도움이 크다”며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원구 대표.

‘기술만이 살길이다’라는 신념으로 2008년에도 한 발짝 앞선 기술 개발 기업으로 얼랑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통신 산업 환경에 맞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칩 제조와 관련해서 “신제품은 현재 판매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해킹, 바이러스 방지 등 통신망내의 보안활동을 수행하면서도 통신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용 칩 시장에서 외산 제품에 맞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얼랑시스템. 10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산을 찾고 있다는 그의 꾸준함이 경영과 제품 곳곳에 스며들어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Portfolio



네트워크 교환기용 핵심 칩 생산 외산 업체에 비해 가격 · 성능 우수



얼랑시스템은 기술제휴사인 미국 얼랑테크사와 공동으로 ATM교환기, 중대형 라우터, W-CDMA 교환기 칩셋, 인터넷 보안카드 등을 개발 · 판매하고 있다. 특히 LG전자의 IMT-2000 장비를 시작으로 지난 2002년부터 핵심 칩세트와 보드를 공급해 왔다. 이 칩셋은 10Gbps에서 최대 40Gbps까지 다양한 속도를 지원하며 경쟁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나 성능이 우수하다.

얼랑시스템 회사소개

- 통신 속도를 빠르게 하는 Core technology를 기반으로 사업 전개
- 초고속통신 관련 IP 및 미국 특허 다수 보유
- 주거래선 : LG전자(LG는 시스템을 완성하여 KT, KTF, SKT에 납품), ETRI 등
- 국내 통신, 반도체분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주주 및 사외 자문단의 컨설팅 지원
- 해외 기술제휴 및 합작 파트너 : 미국 얼랑테크사(지분 25% 보유)

주요사업

■네트워크 교환기용 핵심 칩과 보드 설계 · 판매

- 대용량 교환기 칩(Switch Fabric Chip) 개발 및 판매 :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용
 - 40Gb로 확장 사용가능
 - LG전자의 IMT-2000장비를 시작으로, LG의 타 품목 및 관련회사로 칩 판매확장 추세임
 - LG전자에 6년간 ASIP 칩과 보드 납품중. 40기가급 라우터를 중국에 시제품 납품
- Switch Fabric Chipset의 특성
 - 용도 : ATM교환기, 라우터 등(LG전자를 통해 KT, 데이콤 납품용 ATM교환기 장비에 사용) 특히, 3G W-CDMA용 교환기에 사용되어 최근 수요 급증함(KTF, SKT에서 사용중)
 - 10Gb~40Gb 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확장이 가능(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뛰어남)
 - 현재 동급의 칩을 출시한 업체는 루슨트, 시스코, MMC, PMC 등 극소수임

- 당사 칩을 활용한 통신장비 및 관련 부품 개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용 카드 설계 및 판매

- 인터넷 보안 카드
 - 패킷 모니터링, 블로킹을 위한 다양한 멀티-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환경에 사용됨 (현재 지모컴사를 통해 KT에 납품 중)
- 100% 서명 예방, Dos 공격 예방, Port scanning, 침입방지
- Core 기술 : 당사가 개발한 PS2K™ (2.5G or 2 x 1 G Ethernet)
- 당사는 보안용 LAN card인 PSB 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의 속도와 보안성을 개선하는 장비 개발 예정

기타 라이선스 유통 사업 분야

■Ageia사의 게임 개발용 물리엔진 라이선스 및 카드 판매사업

- Ageia사의 게임 개발용 물리 엔진(PhysX) 라이선스 판매
 - ※ Ageia사 : 게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미국의 선두업체
 - 개발 라이선스 구입 후 유지보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게임 매니아용 PC에 장착되는 PhysX 하드웨어 카드 판매
 - 카드가 PC에 장착되면 폭발, 머리결의 움직임 등을 섬세하고 리얼한 표현 가능
 - 카드의 기능 : PPU (Physics Processing Unit : 물리연산처리용 전용프로세서)
 - 국내 게임개발업체 엔씨소프트와 계약체결 외 다수 업체와 상담 중